



CARITAS WONJU

2010년 가을·겨울 <제21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산타가 되어 주세요 ▶16면



7 사랑의 모금통 설치업체를 찾아



12 뼈야따스에서 온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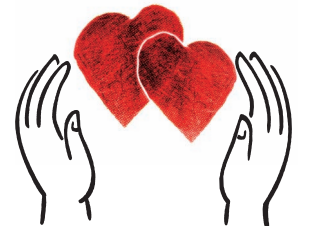
14 불우이웃돕기 미용 이벤트



17 WBS 하상 문화방송 1주년



24 고국 아동 후원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심는 순서

	글 심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최기식 신부
	카리타스란	
3	이사장 글	곽호인 신부
4	후원회장 글	유홍열 회장
5	편집인 데스크	정영희
6	라인댄스 DVD 제작	
	라인댄스의 세계에 폭 빠지다	정유선
7	사랑의 모금통 업소를 찾아서	차명자
8	봉사와 행복	곽병은
9	속삭임의 행복	이영목
	아름다운 세상	박평일
10	가지 않은 길	경혜 스코거보
11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와 세금공제	노상문
12-13	빠야따스에서 온 편지	김정임 수녀
14-15	불우이웃돕기 미용 이벤트	유자경
16	산타가 되어주세요	유자경
17	WBS하상문화방송 1주년 당신이 계셔서 듣습니다	김 데레사
18	미국의 첫 관문 - 엘리스 섬	이소영
19	시설소개 - 영월군 노인 요양원	
20-21	원주후원회 소식	
22	나는 할 수 있다	이현지(가명)
23	아동후원 - 필리핀 빠야따스	
24-25	고국아동후원	
26-27	후원회비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8	후원금 내역 (2010년 5월 - 2010년 10월)	권순해, 박은영
29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김금진, 박예람
30	광고	
31	광고	
32	광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회원님들께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후원회장·천사들의 집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힘들게 하던 더위도 장마도 다 지나가고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날씨, 아름답게 물드는 산과 들, 가을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고, 더 많은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 줍니다. 낙엽 하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더위와 비바람에 부대끼며 지나는 날들, 온 몸이 붉어지도록 열매를 만들기에 몸살을 앓으면서 내일을 향했는데 이제는 썩기를 청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찬연합니다. 꺾이고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밟히면서도 소리없이 자기 갈 길을 따라 사라져 가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겐 가르침이고 하느님의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열매가 있고 그것을 만드는 가랑잎의 참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 최고의 열매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도 이웃과 작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하느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우리에게뿐 아니고 참으로 많은이들에게 태양같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 회원님 가정에도 평화와 기쁨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하며 주신 사랑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원주에서 최기식 신부 드림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 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배우는 용기

곽호인 베드로 신부 <원주카리타스 이사장·성 정바로 천주교회 주임신부>

얼마 전 제가 맡고 있는 성 정바로 성당에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감동적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세례명이 히아친타인 이희아 씨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증후군으로 양 손에 손가락이 각각 두 개 뿐이고 무릎 밑에서부터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처음 손가락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 물리치료를 시작한 피아노는 건반소리 내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아노 노력을 거듭한 끝에 7세 때인 1992년 첫 출전한 피아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후 장애극복 대통령상, 신지식인 청소년상 및 문화예술인 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도 선보인 쇼팽의 즉흥 환상곡 연주를 위해 6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내심과 함께 이희아 씨는 장애인들에게 “자기 상황에 비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남아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대화 시키라” 는 말로 긍정적인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간호사가 되었다던 이희아 씨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히아 씨를 낳았을 때 그 당시 한국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은 캐나다로 입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아 씨를 기르기로 하였고 각별한 사랑과 지도로 히아 씨를 양육했습니다. 연주 사이 사이마다 밝은 미소로 체협담을 들려준 이희아 씨는 절망 속에서 아픔을 이기고 훌륭히 성장한 연주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당신도 하면 된다” 는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희아 씨는 사랑 나눔에도 한 몫을 하여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애우 돕기 등을 목적으로 한 자선 음악회를 여러번 열었

습니다. 이번 음악회도 열악한 환경과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는 북한의 나진과 선봉의 탁아소를 돕기 위한 북미주 10개 성당 순회 연주회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매일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방문하여 “볼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여 녹음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몇일 후 찾아가 보니 장님이 된 친구가 밝은 낯으로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앞을 못보는 친구의 삶에 대한 태도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기를 “생각해 보니 내 장애는 상당히 부분적인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는 후천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이 사물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던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경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낮은 이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뿐 아니라 요즈음의 나쁜 미국 경제 사정으로 인한 실직, 사업 부진 등의 이중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망하기 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믿고 곤경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를 육안으로 보기보다 마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간혀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후원회장 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

또 한 해를 보내며

후원회 회원 여러분과 또 이번 회지를 읽으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벌써 다시 반 년이 지나고 겨울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호의 인사말을 어렵게 쓰고 나서 다음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일찍 써 놓으리라 다짐을 해 보았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나 고민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지금 원고 마감에 밀려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적어도 제게는 조금 색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 살다 보면 일생에 한두 번은 봉사해야 한다는 법정 배심원후보에 뽑혀서 며칠을 법원에서 보내게 되었던 일입니다.

주변의 경우를 보면 생업에 바쁘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면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사무실 업무가 밀렸다면가 혹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가 빠질 수 있을만한 핑계를 찾아보았으나 일하는 직장이 이런 이유에 무조건 휴가 처리를 하여 주는 곳인데다 적당히 둘러댈 일을 찾지 못해 법원에 출두하라는 날짜에 아침 일찍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받고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여 주는데 그저 단순한 범죄이었으면 좋았으련만 여짜다 강간 및 살인사건의 법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죄질이 나쁜 흉악범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더구나 10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이고 이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었습니다.

담당 판사로부터 사건의 개요와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결정하여야 할 사항 등을 여러 날에 걸쳐 들으면서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을 가지고 이 무슨 시간낭비인가 하는 짜증이 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옳은지 나는 그 제도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였더니 판사가 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며 집에 가라고 하여서 삼 주간의 제 법정 체험은 거기서 끝났지만 법정에 나와 앉아있던 사형수의 얼굴은 한참이나 제 머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흉악범이라는 선입감에 첫인상은 조금 혐악하다 느꼈지만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하는 모습은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입히고 살다가 또 그렇게 죽어야 하는걸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던 말중에 ‘이 세상이 내가 있음으로 더 나아지도록 ...’ 였든지 그 비슷한 뜻의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들은 격언이었는지 한국말로 들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들었을 때에는 그럴듯하다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듯싶습니다. 제가 본 그 살인범처럼 사람을 죽이고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더 낮게 한 것이 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격언이나 교훈이 모두 다 좋은 말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처음에 생각지도 않던 후원회 일을 보게 되면서 어디 가서 아는체라도 하고 회원모집에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자선’ 이라든지 ‘기부’ 같은 뜻이 담긴 옛사람들의 말이나 교훈 등을 많이 찾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읽었을 때는 저도 공감을 했고 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들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보다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역시나 제 욕심이 먼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마도 어딘가에 찾아 놓았던 교훈들을 다시 꺼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까 봅니다.

지난번 회지가 나가고 글을 잘 썼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닿는 것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회원에 가입하여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직접 감사의 편지라도 드린다는 것이 또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지가 나가고 또 한 분이라도 새 회원이 가입하시면 못 쓰는 글을 어렵게 쓴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지에는 저보다 나은분이 이 자리를 맡아 이런 황설수설이 아닌 제대로 감동스러운 회장인사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아 이 글을 읽으시게 된 모든 분들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흥열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장)



편집인 데스크

무심히 지나치는 소중한 것들

지난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오전 7시51분 러시아워로 혼잡한 워싱턴DC 광장 플라자(L'Enfant Plaza) 메트로 스테이션. 연방정부청사로 출근하는 정책 분석가, 예산 심의관, 컨설턴트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출근에 바쁘다.

청바지 차림에 긴팔 T셔츠, 워싱턴 내셔널스 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악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다. 그는 바흐의 '사콘(Chaconne) d단조'를 시작으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폰세의 '에스트렐리타(Estrellita)', 마세넬의 '타이스의 명상곡', 바흐의 '가보트(Govotte)' 등 6곡을 연주했다. 히든 카메라에 담긴 비디오 테이프 분석 결과 45분간 이곳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1097명. 잠시라도 서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 동전이라도 던져 준 사람은 27명.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인 돈은 고작 32 달러 17센트였다.

이날 깜짝 공연한 '거리의 악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클래식계의 '완소남'인 조슈아 벨(Joshua Bell). 피플 지 선정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뽑히기도 한 벨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 선데이 매거진의 요청으로 '실험 무대'에 섰던 것.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1713년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350만 달러를 호가하는 '깁슨 허버맨(Gibson ex Huberman)'.

그해 4월 워싱턴 포스트 '선데이 매거진'은 '아침 식사 전의 진주들(Pearls Before Breakfast)'을 타이틀로 조슈아 벨의 기사를 심도있게 다뤘다.

워싱턴 포스트 취재진은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Maestro)이며 음악감독인 레오닐드 슬래킨에게 벨이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돈을 모았을까 물었다. 그는 150 달러로 추측했다. 하지만 슬래킨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조슈아 벨이 평소 받는 개런티는 1분에 1,000 달러 정도. 하지만 워싱턴 메트로 역에서는 1분에 단 1달러도 못 벌었다.

당시 벨의 지하철 역 연주는 미주한인언론

에서도 '조슈아 벨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돼 화제가 됐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DC 국립미술관에 걸린 명작 페인팅에 150달러 가격표를 붙여 시내 고급 레스토랑 벽에 걸었다. 실험작품은 미국 추상화의 대가인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의 500만 달러짜리 그림. 벨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다. 단지 식사를 하던 한 아트 큐레이터만이 "저 그림은 엘스워스 켈리 그림과 좀 닮았다"라고 말했을 뿐.

아마 필자도 벨이 연주하는 날 그 장소에 있었다면 벨을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켈리의 명작 역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그림이구나' 했으리라.

매일 매일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연주'와 '명작 미술품'에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일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비싼 입장티켓을 사서 음악회에 가거나 미술 박물관에 가는 사람들은 '연주'보다는 연주자의 명성, 화가의 이름에 값을 치르며 자기만족 하는 것일까. 뚜렷한 주관과 개성 없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것, 유행에 열광하며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 저마다의 가슴에 '외판 삼'을 갖고 사는 현대인의 쓸쓸한 자화상은 아닐런지.

좋은 집과 비싼 차, 화려한 명품들,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며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생뽕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겨울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12월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된다. 쫓기듯 바쁜, 복잡하고 무심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참 모습, 진실된 삶, 예술의 참된 아름다움,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에 잠겨본다.

정영희 기자

〈원주 카리타스 편집인/워싱턴 한국일보 편집국 부장〉



토요일 오전 성 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흥 세실리아 강사님의 지도 아래 10여명의 수강생들이 라인댄스 배우기에 한창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라인댄스 강습이 있었지만 이번 강습은 좀 특별하다. 세번째 라인댄스 영상교재 DVD를 제작하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이다.

라인댄스 1과 2에 이어 새로 제작될 라인댄스 초급 DVD에는 Boogie Down, Honky Tonk, Volare, Space Cowboy, Tennessee Waltz 등에 맞춘 라인댄스 13가지가 실린다. 특히 '새처럼 날아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서울의 아가씨' 등 흥겨운 우리 가요에 맞춘 라인댄스도 선보인다.

라인댄스는 글자 그대로 한 줄로 서서 하는



새로운 라인댄스 DVD 제작

춤으로 파트너 없이 아무 때나 즐길 수 있으며 동작이 단순하여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흥 세실리아 강사님은 2006년 10월부터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

해 1년에 2-3회씩 꾸준히 8주간의 라인댄스 강습을 지도하셔서 이번 강습이 11회째 강습이다. 그러니 모두 90주 가량을 라인댄스 강습에 바치신 셈이다.

흥 세실리아 강사님은 "내가 갖고 있는 능

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만사 제쳐 놓고 강습에 임한다"며 "이번에 제작될 DVD도 많은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 세번째 DVD는 내년 초반기에 출판될 예정이다. 라인댄스 수강료와 DVD판매 수익금 전액은 한국의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필리핀 파야파스 어린이 집 후원금 등이 웃돕기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라인댄스 초급 2 DVD 주문:

·가격: \$ 25 (전화 주문시 우송료 \$3 추가)

·문의: 571-432-9868

·수표는 지급인 난에 Caritas Wonju로 써 주시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로 보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석 달 전, 때마침 한국에서 방문하신 친정엄마와 함께 용기를 내어 라인댄스 세계에 입문하게 된 저는 현재 제대로 춤바람이 나 있습니다.

댄스라고는 고등학교 무용 시간 말고는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뭘지도 이런 뭘치가 없지...' 라는 생각에 선뜻 라인댄스 강습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제 몸은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머리 속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잘 움직여 주질 않습니다. 어릴때 심한 황달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 때문에 저는 행동도, 말하는 것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라인댄스 강습에 참여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친정엄마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매일 밤낮으로 책상 앞에 앉아 책과 컴퓨터와 씨름하며 사는 딸내미에게 운동도 시켜줄 겸,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 주시고 싶으셨던 게지요.

시작 전에는 "내가 잘 따라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었는데, 흥 세실리아 선생님의 세련된 몸짓과 세심한 구령에 맞추어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엄마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시간이 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지면서, 첫날 첫 스텝을 밟는 순간부터 엄마와 나는 라인댄스의 매력 속으로 속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트윙스트', '서울의 아가씨', '남성 금지구역' 등의 60-70년대 히트곡을 부르신 이씨스터즈의 멤버셨던 엄마의 몸놀림은

그야말로 왕년 실력 바로 나와 주시더라고요. 어찌나 예쁘게 몸을 움직여 주시는지. 특히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실때는 그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할머니이십니다.

반면, 초급 과정이라서 배우는 몸동작이나 스텝이, 왕초보인 제가 보기에도 그리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뇌성마비 특성상 몸과 마음이 항상 따로 노는 저.

그래도, 흥 세실리아 선생님의 "하나 두울 세엿 넷", "셔플, 셔플, 재즈박스 하고~" 등등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몸동작에 저의 온갖 몸의 촉각을 곤두세워 따라하다보면 어느새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어느날, 왼발 엄지 발가락이 누르면 너무 아파 단지 신발이 꼭 끼어서 아픈가...라고만 생각하고 며칠 아픈 채로 지나다가, 발가락에 발랐던 페디큐어를 아세톤으로 지우는 순간, 왼쪽 엄지 발가락에 생긴 시퍼

정유선 릿따 <조지메이슨 대학 특수교육학과 연구교수>

런 멍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불편한 저는 라인댄스 할 때 발목과 발가락에 힘을 꼭 주고 하는데, 그렇게 멍이 시퍼렇게 드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몸을 흔들며 땀 뺀 것이지요.

그래도, 흥세실리아 선생님과, 함께 강습을 받으시는 자매님들의 "순서 잘 외우시네요." "잘 따라 하시네요." 이러한 격려들로 인해 저는 용기를 가지고 강습 기간 내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할수 있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이 정유선도 라인댄스 하게 만드네요.

시간은 흘러 흘러, 8주 간의 즐거운 라인댄스 강습이 끝나고, 이젠 제가 원주 카리타스 후원금 마련을 위해 제작되는 라인댄스 비디오 반에 들어가 또 열심히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디오 반에는 안 들어 가려고 했었지요. 비디오 찍을 때 저의 틀

라인댄스의 세계에 푹 빠지다



린 몸동작으로 인해 자매님들 모두가 또 다시 찍고, 다시 찍기를 반복하게 되는 민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고, 또 제게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친정엄마께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 세실리아 선생님과 다른 자매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시 용기를 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몸은 좀 안 따라줄지언정, 후원금 마련이라는 좋은 일에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이 좋고, 라인댄스 하는 동안 제 마음이 즐겁고 운동도 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그리고 자매님들과 매 시간 끝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나누는 정겨운 대화 시간도 은근 기다려집니다.

이왕에 제 라인댄스 하는 모습이 비디오에 실리는거, 비록 완벽한 동작은 못 보여 드릴지라도, 순서라도 완벽하게 외워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요즘 집에서도 흥겨운 라인댄스 음악에 몸을 싣고 스텝을 밟으며 순서를 외워 분담니다. 제가 라인댄스 하는 비디오를 보며 흐뭇해 하실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 그리고 같이 기뻐해 줄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흥 세실리아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정유선 교수의 저서로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가 있고 공동저서로는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첫아이' 등이 있으며 공동 번역서로는 '행복한 기술, 재할공학'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나의 성의없는 하루 하루가 기억에 새겨지지 않아서인지, 2010년이 자취도 없이 아쉽게도 끝나고 있다.

자주 일어나는 일 중, 즐겁게 하던 일이 언제부터인가 새로움이 사라지면서 숙제처럼 부담스러워 점점 미루게 되며 어느날 은근슬쩍 마음에서 영영 그 일에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무심해진다. 지금 나에게 제일 큰 숙제는 모금통 일의 현재 상황을 회지에 보고하여야 하는 일인데, 그동안 성당으로 가져다 주시는 동전을 아무 생각없이 입금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반대로 꾸준히 모금통을 성심성의껏 모아 보내주시는 분들의 정성에 감탄하고 감사한다. 아마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 모든 면에

도 성실하실 것이며 2010년도가 그 분들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 믿는다. 또

모금통 식구의 초심

차명자 (카리타스 운영·재정이사)

한 연락이 끊긴 모금통 식구들은 2011년의 새로운 계획에 모금통 임무도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한다.

나처럼 모금통 일에 생동감을 잃으신 분들은 왜 이 일을 계속하여야 만 하는지,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할 기

회를 가져 주시길 바란다.

나는 김 데레사 전 회장이 시작하신 모금통 설치사업에서 수거된 모금통의 동전 세는 일을 도와드리다가 열렬결에 담당자로 되어 버렸다. 대단한 사명감도 없이, 하지만 하면서 하찮은 동전들이 모여 큰돈이 되어 가난한 이웃에게 커다

란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 학교 설립비나, 식수 얻는 시설비 지원 등등), 여러 기관이 SOS를 보냈을 때 모금통 자금으로 선포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일년 내내 모금통에 모인 합계 금액이 그 어느 모금행사 못지않게 이웃 돕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 모금통 식구분들이 긍지를 가지셨으면 한다. 또 모금통은 아주 작은 밀천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 뚝뚝 채울 수 있는 불모단지라는 것, 그리고 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가 아니니 자유롭게 시급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씬짓돈 같은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제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 많은 사람들의 잔돈들이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희망과 사랑을 배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우리 모두 다짐 하길 바란다.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진 곳의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



Tyson's Super Cleaners



Capitol Cafe



봉사와 행복

곽 병 은

〈갈거리사랑촌 대표〉

원주 중앙동에 무료급식소가 있다. 10여 년 전부터 하루 100여 분의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계신다.

그리고 매주 요일별로 10여명의 봉사자들이 주방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연세가 70이 넘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도 이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고 또 공사현장에서 하루 벌여 하루 생활하시는 어떤 젊은이는 비가 오던지 일이 없는 날은 이곳에 와서 설거지를 맡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쁘고 귀한 시간들을 내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곳에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신 덕택에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점심 한 끼 식사도 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다.

나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용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들을 보지만 더 행복해 하는 모습은 주방 안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봉사자분들의 밝은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신부전으로 매주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어느 봉사자에게서 이곳에 올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

갈거리사랑촌의 가족들에게 매월 말일은 기다려지는 날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용돈이라야 몇 천 원, 몇 만원이지만 이들은 용돈을 모아서 장보러 가는 날 사고 싶었던 옷, 시계, 라디오, 먹을 것 등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식구는 돈을 모아서 조카들이 오면 용돈을 주며 삼촌으로서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가족들도 한 달에 한번 이날을 무척 기다리지만 용돈을 주는 내가 더 기다려진다. 한 명 한 명 손에 용돈을 쥐어주면서 나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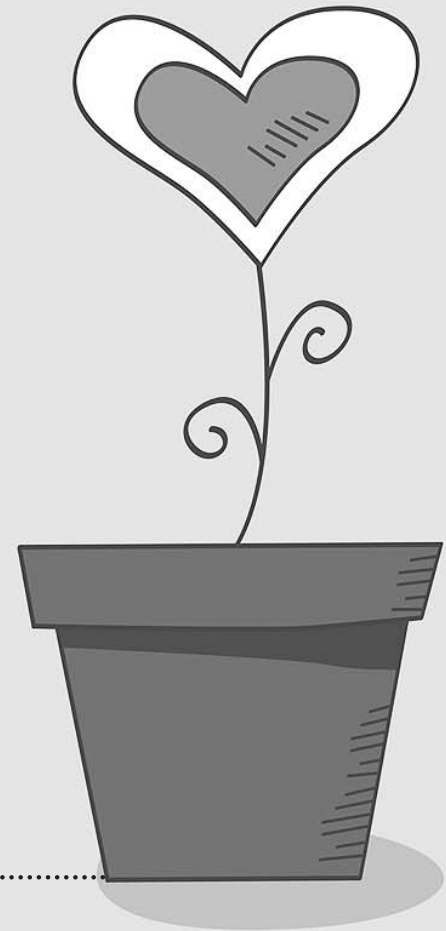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 봉사는 물질적, 정신적 자신의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고 자기희생이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보다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고, 소유할 때의 행복과 나눌 때의 행복은 양과 질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이다.

봉사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구성요소이다. 경제발전이 되면 될수록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다양화 되는데,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자원봉사가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은 부족한 국가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자원이다.

물질만능과 경쟁, 개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근 흉악범죄 자살 같은 생명경시 탈인간화 현상이 자주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무섭게 한다. 이러한 공동체정신, 인간성이 상실 되어가는 현대인에게 자원봉사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을 것이다. 봉사는 봉사자 자신이 행복해지고 성숙해지는 수단이 되고, 현대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민사회활동이 된다.

원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마음 따뜻한 도시이면서 한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어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 함께 행복해지는 성숙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 윗글은 2010년 10월 4일(월) 원주투데이 시평에 게재된 글입니다.



속삭임의 행복

이영목 <전 워싱턴 문인회장>

오늘 카리타스 회보에 실릴 원고를 청탁 받고 솔직히 말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말인즉 글 쓰는 사람이라 적당한 줄거리에도 말장난 같은 재주로 글을 쓸 수도 있었으나, 카리타스에 실릴 글이란 하느님, 진실, 행복, 기도 같은 것을 주제로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자니 나 보고 너의 가면을 다 벗고 너의 진정한 모습을 다 보여야 된다는 주문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백컨대 사실 나는 시기, 질투, 욕심,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당혹스러웠겠지요.

그러다가 잠시 생각해보니 지난 주에 내가 곤혹스러웠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취했던 행각을 이야기 함이 나의 한 면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 내가 나가는 교회의 작은 모임인 우리 동네 교인들의 소위 속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소통을 주제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분이 나보고 “이 선생은 기도를 하시나요?”하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왜 그분이 이런 모임에서 흔히 쓰는 “이 성도님” 아니면 격을 하나 높여 “이 집사님” 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또 왜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 잘 압니다.

사실 나는 이 속회는 물론 어떤 모임에서, 하다못해 식사기도나, 감사기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도 한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었으니 그런 질문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진실로 고백컨대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나 또는 나의 주위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같은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도저히 그분들의 신앙심을 따라 갈 수 없는 듯했고, 그러한 내가 그저 입술에서만 아름답고 하느님에게 아첨하는 듯한 단어를 써 가며 기도를 인도한다면 나는 위선자이거나 파렴치한 놈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사코 기도를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떨결에 “네,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나는 지금 이 글을 써 내려 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버릇 중 하나인 나의 ‘하느님과의 속삭임’이 진정 하나의 기도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공식적인 속회가 끝나고 몇 가지 의논과 소식 전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속장 집에서 일인당 얼마씩을 모아 식재료를 사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과, 또 하나는 워싱턴의 사우스 이스트 지역의 아주 빈민지역에 한국 여자 한 분이 “죽으러 그곳에 갔느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취임했는데 그분이 교회의 불우이웃돕기 기금 중 일부를 그 학교에 배정해 줄 수 없느냐고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으나 이미 배정이 끝난 후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인제나처럼 하느님과 속삭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지금 머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란 놈이 서로 제가 옳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죠?”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한 놈은 ‘추수감사절 파티에 음식을 간소하게 해서 일인당 음식값을 10달러씩 줄여서 그 돈을 모아 그 여선생에게 보냅니다’ 하는 것이구요, 또 한 녀석은 ‘내가 뭐 잘났다고 남의 주머니 사정, 남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나서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하느님 제가 어떤 놈의 편을 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나는 똑같은 속삭임을 그 다음날도 하느님께 했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응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나는 속장 댁에 아침 일찍 들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워싱턴 DC에 있는 여선생에게 전달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느님에게 그날 밤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저 오늘 잘 했지요, 제가 하느님의 응답을 받은거죠?”

나는 그날 밤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나만 혼자 갖는 하느님과의 속삭임입니다. 나는 항상 하느님의 무언의 응답을 받고 있고, 이것이 나만의 기도입니다. 매일 밤 하느님과의 속삭임 속에서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되돌아보고, 나를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편안한 꿈나라로 간답니다. 어때요, 우리 모두 잠들기 전에 하느님과 속삭임의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요... 오늘밤 편안히 주무세요.



아름다운 세상

박평일

‘아름다운 세상’은 인류가 끊임 없이 추구해 온 영원한 꿈이요 염원이다. 인류의 수많은 철학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들이 ‘아름다운 세상’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야훼,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에

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탄사가 여섯 차례씩이나 나온다.

혼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창조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곧,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의 모델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에덴 동산’이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세상 모습은 이러했다.

첫째로 하나님과 자연, 인간들이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인간과 자연은 공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사랑 안에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갔다.

둘째로 선악의 구분이 없었던 자유로운 사회였다. 인간들은 벌거벗은 채로 부끄럼 없이 자유롭게 살아갔다.

이는 인간관계속에 벽이나, 숨김, 거짓이 전혀 없는 오픈된 사회였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경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공유하는 나눔 공동체 사회였다.

요즘 흔히 말하는 ‘무소유 삶’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사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에덴동산에는 선악과 열매가 열리는 한 그루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의 열매는 탐욕의 눈을 뜨게 하는 열매였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탐욕이

에덴 동산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일한 율법으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했다.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담과 이브였다.

그 결과로 인간들은 탐욕의 눈을 뜨면서

나와 너 사이에 벽을 쌓고, 내 것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흉한 세상이었다.

‘아름다운 세상’은 사랑과 자유, 그리고 나눔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가지 않은 길



경혜 스코거보 (안나)

“Life is full of surprises!”

한국말로 이 표현을 하자면...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표현하면 될지...?

한국말을 못하는 가족들과 미국에서 살며, 28년 전의 한국어 구사의 상태를 겨우 유지하며 이제는 쇠퇴해 가는 기억력으로 나의 한국어 실력은 ‘창작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면 너무 큰 과장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이를 더하며 둔해지고 희미해지는 육신의 감각 속에 더욱 더 선명해져 가는 경이로움이 있다면 창작되어지는 내 한국어 실력만큼 내 인생을 향해 창작하는 연출가의 메가폰을 높이 들고 진정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다가올 삶이라는 작품의 미지수를 향해 던지는 ‘물음표’가 아닌 펼쳐지는 내 삶을 발견하고자 하는 담대한 ‘느낌표’를 던질 수 있는 연출가의 용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인생을 말하며 친숙한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이다. 인생을 표현한 여러가지의 ‘길’이 있지만 그중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은 잊혀지지 않는 ‘길’ 중의 하나이다.

이 시를 대하며 나는 언제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쉬워 하는 마음이 되곤 하며... 내 삶에서 맞닿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언제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연민은 가야 될 길의 선택에 대한 두

려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연출가의 경이로움을 안은 내 안에 소유하게 된 담대함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나의 삶을 변하게 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함이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던지 변화되는 삶의 길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은 놀라운 힘이다. 진정 놀라운 것은, 삶은 내가 살아간다는 행함으로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은대로 ‘거두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확의 날은 영원을 향한 문턱에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놀랍고 신비로운 아름다운 날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 날을 만나며 영원을 품은 마음으로 선택한 삶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기 전 지나간 삶의 길을 돌아보며 그 때 다른 길을 택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로 내 가슴을 도려내던 경험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계실 때... 나는 내가 미국에서 사는 삶을 택했다는 것을 너무도 후회했다. 한국에 계신 아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내가 선택한 삶의 길을 비판하는 마음이 되어 혼자있는 시간을 울며 지내는 날들이 되었다.



멀리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평안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양노원 봉사의 기회를 맞으며 지금 내 주위에 계신 노인들을 돌보아 드리게 되어 곧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찮으신 아버지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마음이 되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다.

그 마음을 엄마와 나누게 되었고 내가 혼자서 마음 아파할까 걱정하시는 엄마는 나를 위로하며 동생들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와 아버지를 돌보아 주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하는 엄마의 사랑과 더불어 ‘품은 대로 거두어지는 삶의 길’을 보았다. 아버지의 편찮으심을 지켜보는 아픈시간들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품고 있다면 내가 선택한 가야 될 길에 대해 충실하며 기뻐하는 마음의 한부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을 해야하나 저것을 해야하나... 갈라진 두 갈래의 길 앞에 다가오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을 품은 마음’을 안고 ‘거두는 삶’을 꿈꾸며 담대히 결단하며 내어딛는 연출가의 믿음의 삶의 길이 되길 바란다.

“Life is full of surprises!”

결단의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삶의 굴곡의 경이로움 속에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펼쳐주시는 놀라운 삶의 그 길을 이미 다듬어 주신 이의 영원을 품은 가슴에 담지 못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감당치 못할 아쉬운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와 세금공제

노 상 문

〈카리타스 고문 공인회계사〉

미국의 일년간 기부금액은 대략 3,200억 불이 넘는다. 이러한 미국의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2.5%에 해당된다. 물론 여기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부호들의 엄청난 기부액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미국인들의 기부문화가 얼마나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부문화는 특히 세금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장려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어떻게 받고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부자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 면세단체 (Tax-exempt Organization)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주로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화 등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면세기관으로 인가받은 단체에 기부를 해야지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은 물론 주식, 부동산 그리고 물품을 망라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기부할 수 있다. 우선 현금으로 250불 미만을 기부한 경우에는 결제되어 돌아온 수표나 자선단체에서 받은 영수증 또는 기부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서류 중 한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250불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수취 증명서(Written Acknowledgement)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현금이 아닌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250불 미만이면 단체이름, 기증 날짜와 장소, 기증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관련 내용을 잘 기록해 두어도 괜찮다.

250불에서 500불 이하의 자산을 기증하면, 기증 물품의 내역, 날짜와 장소를 기재한 수취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501불에서 5,000불 이하의 자

산을 기부하면, 자선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취 증명서가 필요하고, 아울러 세금보고서에 양식 8283을 첨부하여 기부한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부한 물품의 가치가 5,000불이 넘으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에다 전문감정인의 감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를 기부하는 경우 예전에는 Blue Book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매겨 공제금액을 책정했지만, 이제는 자선단체에서 기부받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되팔아서 남은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금액이 500불이 넘으면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양식 1098-C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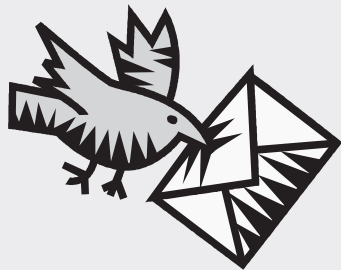
그리고 자선단체에 자신의 전문지식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신이 지불한 각종 경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세금공제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당 14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기부를 한 개인이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항목별 공제금액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2010년 표준공제 금액은 부부가 11,400불이고 싱글이 5,700불이다.

주식회사 (C - Corporation)의 기부금 공제는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의 1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로 넘어가 5년동안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파트너십이나 S - Corporation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직접 기부금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또는 주주 (Shareholder)에게로 세금공제가 이전되어 개인들이 세금보고할 때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빠야따스에서 온 편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제가 겨울러서 이렇게 소식이 늦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선별하여 어머니들에게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막상 시작 당일에는 아이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어린이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조금 걸어야 했는

데 엄마들이 조금 불편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곳 저곳에서 몰려들어 자기 아이를 받아달라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3명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시끌시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놀이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기에 어린이집 시설이 그들에게는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곳입니다. 현재는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고급스러운 반찬은 아니지만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해맑은 미소들을 모아 보냅니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8월23일

김정임 가말라 수녀 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저희 빠야따스의 어린이들은 주위 환경이 어찌 되었든 가난한 가정 환경을 불행하다 생각치 않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빠야따스의 아주 허름한 성당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2주간의 짧은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280여 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남자 아이가 저희들이 그곳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울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밥을 나누어줄 때야 울고 있는 그 사내아이를 보고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가져온 밥그릇이 의자에서 떨어져 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못 가져갈 것 같으니 내내 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 저곳 남아있는 그릇을 찾아보았으나 여러분의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비닐 봉지에 밥과 반찬으로 준비한 소세지를 넣어 그 아이에게 안겨주었더니 하루종일 울었던 울음을 그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빠야따스의 가슴아픈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이번 '기빙 트리' 행사에 우리 빠야따스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편지가 모여지는 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카리타스 회지에 관계하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셔서 회지에 실을 수 있도록 결연을 희망하는 아동들의 신상과 사진을 급히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의 명단과 더불어 이번에 시작한 까리따스 Feeding Center에 대한 소개를 함께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연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락이 없어

궁금합니다. 실은 그 5명의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어려워 가까스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와 빨리 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7월에 시작했던 Feeding Center 옆에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곳을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려 했지만 개조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

고서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어떤 고마운 분이 빠야따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라고 성금을 보내주신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건축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부탁하고서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을 최소한의 경비로 개조하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매번 어려운 이곳 사정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도 중에 저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또한 고마우신 원주 카리타스 회원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회원님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010년 10월2일

필리핀에서 김정임 가말라 수녀 드림

빠야따스 어린이 집 도와주실 분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 메모란에 '빠야따스 어린이 집 후원' 이라고 써 주세요)

문의: 571-432 9868

빠야따스 어린이 결연: 23페이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바야다스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미용 이벤트’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위해 8천여 달러 모금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편집인)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곽호인 신부, 회장 유홍열)은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미용 이벤트’를 성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가졌다. 고국의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 (원장 캐서린 박)의 특별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캐서린 박 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미용사들이 봉사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70세 이상 시니어 5달러, 여성 15달러, 남성 7달러, 초등학교 이하 여자는 10달러, 남자는 7달러 등) 헤어컷을 할 수 있었고 여러 종류의 파마 패키지 및 미용관련 상품권 (마사지, 각종 필링, 피부 복합관리)을 일반 가격의 30-40%에 해당하는 특별가에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각종 미용기구, 화장품 판매와 무료 메이크업 강의 및 미용 상담도 있었다.

곽 주임신부는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강원도 산간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난방비는 가장 버거운 문제”라며 “떠나온 고향, 고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헤어컷 수입 전액과 파마 패키지등 상품권 판매액의 50%를 선뜻 성금으로 기부해 주신 캐서린 박 원장은 “나눔을 실천할 때의 기쁨이 그 무엇보다 크다”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미용사들이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데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일요일 미사 후에는 헤어컷 하려는

분들이 몰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런 불편도 마다 않고 많은 분들이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였다. 유홍열 회장은 “불경기로 모두가 어려운 때라 행사를 계획하며 걱정했었는데 작년의 모금액에 웃도는 8천300여 달러가 모금되었다”며 “박 원장을 위시하여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의 여러 봉사자들과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은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2007년에 주관했던 ‘장터 한마당’에서 미용행사를 가졌던 것을 포함해 올해 네 번째로 원주 카리타스와 함께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행사를 마련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해 미용이벤트를 통해 7천여 달러를 모금, 강원도 가문지역 식수 보급 및 배달 지원에 사용한 바 있다. 또한 기타 모금 활동을 통하여 매년 강원도 지역 난방비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미용 이벤트’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총 수익금은 8천310달러였으며, 기타 후원금을 합쳐 1만 달러를 강원도 지역 독거노인 난방비 후원으로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보냈습니다.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의 박 원장님과 직원분들, 언론사,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특별후원: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
- 언론후원: 중앙일보, 한국일보, 주간워싱턴, 주간연예
- 음식 및 간식준비: 박 루시아, 성정바오로 천주교회 성모회 여러분
- 봉사자: 관리부 이남기 베드로 님





산타가 되어 주세요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편집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구촌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고자 제3회 '산타가 되어 주세요' 결연 캠페인을 펼친다.

결연 캠페인은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적은 카드를 '기빙 트리 (giving tree)'에 걸면 후원자들이 20불씩 내며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결연이 되면 이 어린이의 산타가 되어주는 후원자 이름이 적힌 성탄 화환 카드가 대신 달린다. 이번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은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 네팔의 레지나 아모리스 학교, 파푸아 뉴기니의 카리타스 수녀회, 필리핀 빠아파스의 카리타스 수녀회 등 평소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네 개 국가에 있는 시설들이다.

한국에서는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대철 베드로의 집,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천사들의 집, 천사 장애인 요양원, 흑빛 청소년 문화센터, 루치아 (강원도 중장기 여자청소년) 센터, 원주 청소년의 집,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목포 작은 꽃들의 집, 목포 다문화 지원 공부방, 풍수원 성당, 횡성 노인복지센터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선물을 받을 네 나라의 아동들은 모두 892명 (한국 346명, 네팔 202명, 필리핀 빠아파스 212명, 파푸아 뉴기니 132명)이다. 이 중에 많은 아동들이 이 기빙 트리 캠페인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동들이다.

카리타스 이사장인 곽효인 신부 (성 정바로로 한인 성당 주임신부)는 "지난 2년동안 신청 아동 수보다 후원자 수가 더 많은 훈훈한 행사였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 행사도 가난한 어린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878명의 아동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936명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액수가 모금되어 남은 액수는 시설의 다른 복지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들은 큰 것이 아니라 신발, 교복, 학용품, 책가방, 쌀, 우유, 그로서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 가슴 아프게 한다. 선물 목록과 함께 "산타 할아버지 정말 계세요? 계시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라고 적은 귀여운 글이 있는가 하면, "산타 할아버지, 작년에 선물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도 쁘다. 또한 산타에게 보내는 카드에 소원을 적으라는 선생님 말씀에 한국의 7살짜리 한 어린이는 "엄마랑 같이 사는 거"라 적어 아이의 아픈 현실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 캠페인을 위해 성 정 바로로 천주교회에는 11월 27일 성당 입구에 기빙 트리를 설치하였다. 후원금은 아동을 추천한 각 복지시설이나 학교로 송금되며 각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부탁한 선물을 구입해 성탄절에 선물을 전해주게 된다.

산타신청 (수표는 Caritas Wonju 앞으로):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문의: (571) 432 9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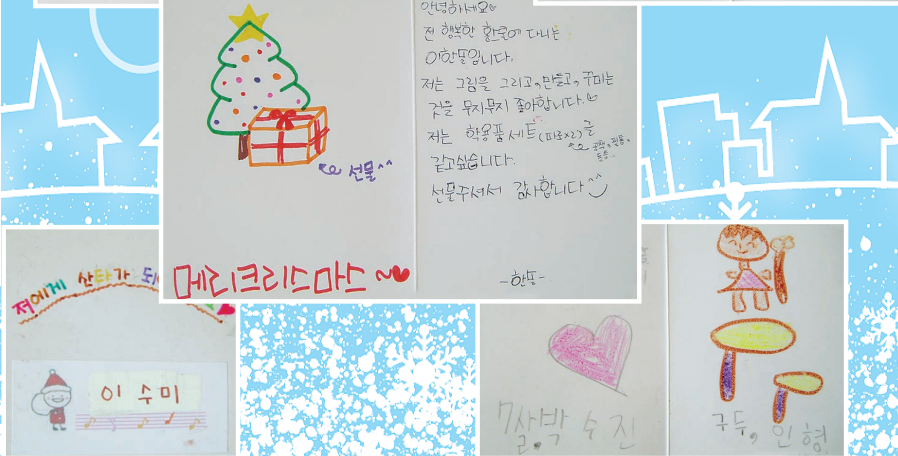


산타 할아버지,
작년 일주일만이라도
꼭 선물 주주세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김가현

산타 할아버지
꼭 선물 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예쁜 인형집
스티커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가현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귀여운 공작이
가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미

저는 노라색을 좋아해요
저는 선물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도구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공은 화가예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리본 색깔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구도, 인형



당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WBS 하상문화방송 1주년을 맞아

김 데레사

(하상문화방송 실무담당)

“어머, 벌써 52회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요? 방송 시작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니요”

생각해 보면 겁도 없이 달려든 철부지가 점점 욕심도 생기고 끈기도 다소 늘고 꾸밈도 늘면서 성장해 가는듯 싶습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제가 이제는 ‘왕PD’ 라는 멋진 별명도 생겼습니다. 미디어의 위력 그래서 지역사회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하고 따뜻한 방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든든한 재정이사,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끊임없는 뒷받침, 각 분야에서 서로 힘을 모아주시는 방송위원 팀들이 계셔서 힘차게 달려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방송안내 작성, 촬영하기 위해 옷가지를 챙겨오셔서 매 회때마다 갈아입으시며 정중히 임하시는 고마우신 방송위원 김종화 베드로님, 커피한잔 나누며 화기애애한 WBS TV 촬영·편집팀, 시원하고 부드러운 정감으로 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 주시는 유관일 사장님, 멋지게 스크랩 작성과 진행을 맡아주던 헌신한 김준경 다니엘님, 아직 뱃지도 못한 분이지만 이메일을 통해 열심히 프로그램 소개 작성을 해주시는 든든한 이광출 바오로님, 하상문화방송 홍보를 위해 선뜻 함께 해주시는 한국일보 정영희 부장님, 중앙일보 천일교 기자님, 주간 위싱턴 이종성 사장님, 홍보물 디자인 작성에 언제나 Yes! 해주시는

백경화님, 방송엔 처음이라며 흑시라도 해를 끼칠까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용감히 도전해 주신 고마우신 남안나 수녀님, 지속적인 방송의 이어짐을 위해 기꺼히 함께 해주신 예쁜 김 조애나님, 다급하게 진행 부탁드림에도 한번에 OK! 해주신 이 엘리사벳 주일학교 교장선생님, 바쁜 시간을 쪼개며 위싱턴 동포사회에 서울 평화방송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콘텐츠 공급을 해 주시는 서울평화방송팀, 무엇보다도 방송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본당의 관호인 신부님이 계시기에 저희 하상문화방송은 늘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부속 비영리기관인 하상한국문화교육원 부설 하상문화방송은 작년 11월 27일 그러니까 가톨릭 연도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 1주간에 첫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WBS 위싱턴 TV 유관일 대표의 도움으로 시작된 하상문화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콕스 케이블 채널 30과 830, 버라이즌 채널 30을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하상문화방송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톨릭 방송인 평화방송 TV의 교양, 다큐멘터리, 신앙, 교리, 건강 프로그램은 물론



밤의 명상을 진행하시는 관호인 성 정 바오로 천주교 주임신부와 방송안내 김종화 베드로 방송위원.

하상문화방송 방송위원들이 자체 제작한 ‘밤의 명상’, ‘안나 수녀님께 물어 보세요’ 등을 방영, 위싱턴 지역사회에 유익하고 따뜻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BS 하상문화방송은 영리를 추

구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정이사들과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늘 뒤에서 힘껏 힘을 실어주시기에 저희 방송위원팀은 각 분야에서 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지역사회에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전합니다.



America's Doorstep, Ellis Island

(미국의 첫 관문, 엘리스 섬)

이소영 <카리타스 편집인/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

◇이민자의 나라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과 노예선 에 실려온 흑인들의 후손을 제외하면, 미국인은 누구나 이민자이거나 그 자손이다. 초기 이민사(immigration history)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맨해튼 남단의 엘리스 섬(Ellis Island)에 가보라. 그곳에는 1990년 이민사 박물관으로 재단장한 이민국(1892년 개국)이 있는데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 가야했던 장소였다. 엘리스 섬을 경유하는 배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상쾌한 바람과 눈앞에 펼쳐지는 장대한 경관에, 어느새 가슴이 설레었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이 우뚝 서 있는 리버티 섬(Liberty Island)과 그 옆의 엘리스 섬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이민자들의 기분을 상상해봤다.

100~150년 전,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올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굶주림이든, 폭풍이든, 종교탄압이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대서양을 건너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 1890년대에 증기선(steamship)이 도입된 후에도 2주일이나 걸렸는데, 이렇듯 긴 항해를 결심했을 정도면 말이다. 증기선 맨 아랫칸에는 2천 명까지 승선할 수 있었는데,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기나긴 시간을 똥나물 시루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 했다. 화장실 시설도 변변할 리 없고, 음식은 상해서 악취가 나는 데다, 배멀미하는 사람도 있었을테니,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을 것

이다.

◇까다로운 이민 절차

이들의 고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입국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일단 엘리스 섬에 도착하면 이름과 번호표를 달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민국 안에 들어가면 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의사가 계단 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며 호흡이 거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빛이 흐릿한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가려냈다. 계단에 다 오른 후에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정신병이나 정신박약이 의심되면 의사가 분필로 이민자의 오른쪽 어깨 위쪽에 X 표시, 질병이 의심되면 오른쪽 어깨 아래쪽에 X 표시, 질병이 확실하면 동그라미 안에 X 표시를 했다. 그외에도 B는 back problem(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Pg는 pregnant(임신)을 의미하는 등, 각종 증세를 옷에 이 같은 약자로 표시했다. 다음 단계는 눈 검사. 안과의사는 눈꺼풀을 뒤집어보며 감염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는데, 당시 유럽에 트라코마(trachoma)라는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이 병에 걸리면 장님이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은 중앙홀(Great Hall)로 가서 서류심사를 받았다. 이 홀의 다른 이름은 '바벨탑'인데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에 각자 자기나라 말을 하



는 광경을 상상해보면 이런 별명이 붙게 된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입국심사관은 통역관을 데리고 하루에 400-500명에게 질문을 퍼부었으며, 이민자가 폭주하던 때는, 하루에 수천 명이 이곳을 통과했다. 통역관은 평균 6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15개 언어를 하는 통역관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 주류사회에 자리 잡은 이민자들

이민국은 세계정세, 또는 국내의 이민정세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1954년에 문을 닫는다. 이 때까지 이곳을 거쳐간 이민자 수는 무려 1200만여 명. 그들은 가방 몇 개만 달랑 들고 초라한 이민자의 신세로 미국 땅에 발을 들이려 놓았지만, 지금과 같은 건실

한 미국사회는 이들과 이들의 후손이 일궈 놓은 결과물이다. 나는 돌아오는 배에서 맨해튼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며 이민자들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걸작품을 감상했다.

A: I'm curious about when my great-grandfather came to America from Ireland. 나는 증조부가 언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왔는지 궁금해요.

B: You should go to Ellis Island and check their archives. You can even find the name of the ship and the date he arrived. 엘리스 섬에 가서 옛 기록문을 확인해 보세요. 타고온 배의 이름은 물론, 도착한 날짜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노후, 존중받는 여생’ 영월군 노인요양원

물 맑고 공기 좋은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에 자리한 영월군 노인요양원(홍금표 신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노인과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영월군과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르신들의 입소가 시작되었고, 지난 10월 6일 지역 내 관계자들을 모시고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원주에서 치악재를 넘어 신림을 지나고 쌀 찢빵으로 유명한 황둔을 거쳐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 비로소 주천이라는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굽은 길을 돌고 돌아 들어선 주천 땅에 새로 지어진 노인요양원은 명당자리가 틀림없나 봅니다. 하루종일 따스한 햇빛이 어르신 시설을 비추고 있으며, 산새와 지렁이 좋은 텃밭이 마음 또한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고,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종종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살면서 온 가족이 매달려 최소한의 일상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부모를 시설에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여 선뜻 요양원에 모시지 못합니다.

요양원을 오가며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을 보며 느끼는 점은, 집안에서 어느 자식이, 아무리 효부라 해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요, 치매 어르신이 아무 곳이나 불일을 보셔도 눈 하나 찡그리지 않고,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피드립니다. 24시간을 대기하며 온갖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말년에 요양원에서 자신의 존재마저 잊은 채 쓸쓸히 살아가지 않도록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리면서 웃음을 드리우고 싶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남은 여생이 외롭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모실 것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원주후원회 소식

천국과 지상의 중간단계

갈거리 사랑촌

구체적 실습일정을 모르기 전까지 ‘갈거리 사랑촌’이란 이름에서 풍긴 느낌으로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이 한곳에 어우러져 있는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 정도만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느낀다는 것보단 ‘봉사정신 함양’ 정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싶었다. 그러나 베니노의 집, 아네스의 집 외에도 십시일반, 노숙인센터 또한 스케줄에 포함된 것을 알고 난 후 어떤 실습이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첫 날, 베니노의 집을 찾아가고 나오면서 같이 실습 들던 친구랑 ‘여기가 천국과 지상의 중간단계쯤이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식구들 표정이 너무 맑았다. 한뼘은 거실에서 잠시 쉬다고 조용히 있었는데 창기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심심하던 차에 얼씨구나 하고 같이 춤추면서 놀았다니 다른 식구들도 노래를 부르고 모두들 신나게 했다. 사실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웃고 좋아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베니노의 집은 이런 마법이 있는 곳이었다. 1시간여의 산책에서도, 성현씨의 하모니카 연주에서도, 조용히 쉬는 순간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이 있는 공간이었다. 만약에 이런 베니노의 집이란 공간이 없었다면 20여분의 식구들이 어디선가 소외받고, 무시 받고 혹은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들 또한 그들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공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느끼고 배울 점이 많았다.

십시일반과 노숙인센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TV속에서만 보던 소외된 이웃들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들은 움츠러들고 웅크려 있었다. 원주역에서 천원도 안되는 컵라면 하나를 받아들며 저녁

밥을 해결하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소주 몇 병으로 추위를 달래고 있는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너무 달랐다.

내가 당연히 먹던 3개의 밥이 이들에게 매일매일의 숙제였다. 어느 복지시설이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노숙인센터 같은 경우 다른 시설처럼 ‘보호’의 의무뿐만 아니라 ‘보호+재활’의 의무가 있었다. 사소한 습관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 사람인데 만성적인 생활습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을 일깨우고 다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다. 십시일반의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연세대 의과대학 지역사회의학실습. (가족분과 산책 동행)

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게 놀라웠다.

2주 동안의 실습에서 의학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느꼈다가 보단 그냥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다운 마음가짐에 대해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더 커지고 탄실해진다면 내가 앞으로 가질 직업을 통해 무엇을 하면 살아갈지도 자연스럽게 해답을 얻지 않을까 싶다. 이런 면에서 이번 갈거리사랑촌에서의 지역사회의학 실습은 분명 좋은 경험이었다.

노기탁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6년)



루치아 씬터아이들의 일일 매장체험 ‘꿈이준’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

루치아 씬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방학 동안에 일일 매장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에도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 매장을 열어서 한다기보다 전시회를 우선적으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독립심을 목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고, 돈도 벌어보는 직업체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방학동안의 계획을 듣고, 의미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았다. 작년에도 해봤었고 그 때는 내가 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루했었다. 그리고 매장을 한다면 물건들의 개수도 좀 더 많아야 할 텐데 그 모든 걸 할 자신이 없었다. 귀찮기도 하고 왠지 벌써부터 노동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빴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작년에는 퀼트를 위주로 했지만, 올해는 리본과 플라워공예를 많이 만들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배운 것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재료들도 샀다.

이것 저것 해보면서 불평을 많이 하여 꾸중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고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면 맥이 빠져 손에서 놓게 되고...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들과 동생들이 한 방에 웅기종기 모여서 만드니, 서로의 아이디어와 솜씨가 모여서 세상엔 둘도 없는 작품들이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힘을 합쳐서 만든 만큼 기대도 많이 했다. 한지부채공예도 있었는데, 봉사자 선생님께서 우리의 서툰 작품을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아주 멋진 상품으로 둔갑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 다 같이 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일이 있었고, 만들어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꿈이준’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을 준비하여 우리가 직원이 되어 손님들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팔아보는 일일매장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단체 티셔츠도 예쁘게 그려 입고서...

‘꿈이준’이라는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걸어 놓고 상품을 진열해 보니 만든 상품들이 의외로 많았다. 동생들은 홍보를 하고 언니들은 상품소개를 했다. 나는 계산을 했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빈틈 없이 행복하게 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마무리를 했다.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 맛있는 저녁도 먹고 우리의 일당으로 물놀이를 다시 가기로 했다.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려 서로가 힘들었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방학을 지낸 것 같다.

일일 매장체험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시간과 노력이 마침내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작은 행복을 준 것처럼, 꿈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이 언젠가 맑은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주어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준비하는 내내 자주 짜증도 부리고 마음에도 없는 오기를 부렸던 것이 반성도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씩 체험해 보면서 나중에 세상에 다가가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의 체험을 지금 이 글에 옮겨 보면서, ‘꿈이준’이라는 일일 매장체험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큰 자긍심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최 유스티나 (루치아 씬터)

“도자기와 사랑에 빠졌어요”

천사들의 집

천사들의 집 아이들은 금요일만 되면 도자기와 사랑에 빠집니다. 강원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아이들의 심성수양 및 여가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금요일이면 강원도 원주 부론 손곡리라는 시골마을의 작은 폐교에서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예술촌, ‘손곡도 예공방’에 간답니다. 들어가는 길이 굽이굽이 시골길이라 초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차를 타면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듯 들떠서 차안에서 재잘재잘~~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첫날은 흙의 질감을 느끼기 위해 도자기 만들 흙을 주물주물 해 보기도 하고 흙도 밟아보더니, ‘응가’ 같은 느낌이라며 아이들끼리 수근 대며 장난스레 웃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품을 만드는 시간, 간단하고 투박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은 본인이 방금 막 도예가가 된 것처럼 진지해집니다. 좀 전의 장난기 어린 표정들은 사라지고, 화분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평소에 집중이 잘 안되던 아이도 길진 않았지만 흙을 만지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를 많이 부리고 소리도 많이 지르던 아이도 흙을 만지는 동안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모두 조용한 분위기에서 흙을 동그란 공처럼 만들기도 하고, 편편하게 펴기도 하고, 실처럼 길게 만들기도 합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자신의 생애 첫 작품을 만듭니다. 실처럼 길게

찰흙을 밀어 파리처럼 빙빙 돌리거나 화분만들기를 합니다.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정말 화초를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구멍이 생기는데 이러면 흙이나 물이 새지 않을까요?’, ‘오늘 만들어서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하며 한마디씩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증이 많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덩달아 선생님도 분주해졌습니다. 질문에 대답도 해야 하고, 아이들 만드는 것도 지도해야 하니 말입니다. 하나, 둘 작품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작품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재미있는지 작은 나무도 심을 수 있을 만한 큰 화분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만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서로 더 큰 화분을 만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화를 불러서 오히려 잘 만들었던 화분이 일그러져 다시 만들 지경이 되었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거 아닐까요?

흙이라는 소재가 참 신기합니다. 내가 만지는 데로 모양을 만드니까요. 우리의 아이들도 흙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아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라는 한계 속에서도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은주 (천사들의 집 사회재활교사)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조손세대, 기초생활수급세대 등으로 구성된 100세대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명절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9월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과 한과, 과일 2종, 양념돼지갈비, 참치 선물세트, 라면 등을 준비하여 추석 명절 나눔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명절나눔을 전달 할 때마다 “어르신~ 명절 건강히 잘 보내세요!”라는 안부 인사를 드리면 독거노인분들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챙겨줘서 고마워~ 잘 먹을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로부터 명절은 흠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의 은덕(恩德)을 기억하고, 풍성하게 차린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보내야 하지만 외롭고 쓸쓸히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의 눈가에는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설에 비해 긴 연휴이기 때문에

혼자 명절을 보내셔야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재가복지에서 돌봐드리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힘겨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끈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고자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재가복지 어르신들을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나눔을 위해 KB국민은행 원주지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송편과 돼지갈비, 가나청과에서 배 2상자, 대관령갈비명가에서 라면 10상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원주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신 후원업체 및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명절나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금품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원주가톨릭종합복지관 자원개발부장)



나는 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후원자님~저 현지(가명)예요.

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 기억하시죠?

이제는 커서 대학 졸업반이고, 조기 취업하여 사회초년생이 되었어요.

이곳 한국은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해져서 가벼운 겉옷을 걸쳐야 하는데, 그곳 미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변화하는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머니와 언니 그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무렵 IMF가 터졌고 전셋집에 살고 있던 우리 가족은 집주인의 부도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왔어요. 언니와 저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교회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네 집에서 1년 지냈어요. 친구네 집도 어려움이 닥쳐 우리는 월 13만원 조그만 쪽방에서 언니와 둘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때 가톨릭 복지관을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계시는 후원자님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달 버지니아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저희 두 자매에게 큰 힘이 되었어

요. 주변에서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반듯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칭찬과 따뜻한 후원,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언니는 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였고, 저는 언니 추천으로 반도체 캐드(CAD)과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하여 반도체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직 사회초년생이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발걸음이 떨리기도 하지만 지금껏 해온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저만의 자신감을 키우려 노력중입니다.

후원자님께 제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제 스스로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저를 가꾸며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저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원자님께서 제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현지 (가명)는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이용자입니다. 2001년부터 버지니아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과 결연을 맺었으며 지속적인 후원을 통하여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필리핀 바야파스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 Ma Imari Rose L. Palo
나이: 10살, 초등학교 4학년
희망: 선생님

Imari는 2녀 10남 중 아홉째이다. 바야파스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는데 매일 건축공사를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기에 고정 수입은 없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형편이다. Imari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다. 아주 똑똑하고 공부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도 잘 한다. 요즘은 아버지가 일이 없어 엄마가 매일 매일 다른 집을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해주어 겨우 학생 교복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름: Kevin Jay Lopez
나이: 17살, 대학교 1학년
희망: 경찰

Kevin은 엄마 아빠,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인 형이 있다. 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가 계신 지방에서 해양대학에 다니고 있다. 엄마 아빠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400페소(한국 돈 10,000원) 정도 받으면 약 값으로 절반 이상이 나간다. 그래도 이번 방학에는 공사판에서 하루 일당 200페소 씩 벌어서 대학교 등록금 중 일부를 지불할 수 있었다. 경찰이 되어 나라에, 가정에 충성을 다하고 싶으면서 부모님들이 탐탐치 않게 생각하였지만 이번에 경찰을 교육시키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부모님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고, 친구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은 학생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열성이 높지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다. 아버지는 토요일까지 막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친척의 트라이씨클(필리핀의 교통 수단 중 하나)을 빌려 운전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름: Rebeca Duran
나이: 14살, 초등학교 3학년
희망: 선생님

Rebeca는 1남 3녀 중 첫째이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쓰레기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모아 팔은 돈으로(하루 50페소, 한국 돈으로 1,500원) 그야말로 생계만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고등학생 되었어야 할 Rebec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그동안 엄마는 몸을 가리기도 힘든 상태일지라도 열심히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모아 팔은 돈으로 올해 Rebeca를 3학년으로 재입학시켰다. 하지만 학교 교복을 사줄 형편도 안 된다고 한다. Rebeca는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동생들도 아주 잘 돌보며, 엄마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엄마를 대신해서 빨래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한다. 올해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되어 Rebeca는 너무 기쁘다.



이름: Buenasito Magnifico
나이: 13살, 고등학교 1학년
희망: 선장

Buen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다. 엄마 아빠가 없는 Buen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주 개구쟁이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사는 것이 너무 막막해 Buen이 있는 앞에서 자살을 하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차갑게 되어 있는 엄마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Buen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 수녀원에서 학용품 몇 가지를 준비하여 주었지만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것이 아는 지 모르는지 Buen은 항상 기쁘기만 하다. 수녀원에서 자주 슬리퍼를 챙겨주지만 워낙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 몇 주가 안 되어 구멍 난 슬리퍼를 수녀들에게 보여주곤 한다.



이름: Jack Leonard C. Bledo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
희망: 과학자

Jack은 3남 2녀 중 첫째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할머니가 계신 곳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 이유는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기에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학비를 그곳에서 지불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자녀 중에 몇은 지방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Jack의 가정도 둘째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시골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Jack은 남자이지만 엄마를 도와 빨래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면서 엄마 아빠와 지내는 방학기간이 늘 기다려진다.



이름: Marianorly Dean Rondina
나이: 6살, 초등학교 1학년
희망: 선생님

Maria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오빠 둘 사이에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는데 작년에 여자 동생이 생겨 사랑이 나눠지는 했지만 동생을 아주 사랑한다. 아빠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일이 있으면 공사장에 나가 하루에 일당 200페소를 받는다. 일이 없어서 먹을 것조차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함께 쓰레기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주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산다. 이것이 이들의 삶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열은 여니 부모들 못지 않다. 올해는 Maria까지 포함해서 세 명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어깨가 몹시 무겁다. 하지만 Maria를 보면 가정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밝다. 목요일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 맨 앞 자리에 앉는 Maria는 6살이지만 기도를 선송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다.

바야파스 아동 결연금은 일년에 200불입니다.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렵니까? 후원 연결이 되면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10은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703-994-3531 (한 린다 안젤라)

이서진 (9세)

서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친어머니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으며 할머니와 고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서진이를 잘 돌보지 못하시게 되어 서진이는 천사의 집에 입소되었고 고모님이 서진이에게 관심을 갖고 경제적 지원을 조금 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서진이와 함께 외출을 가끔 하시기는 하나 서진이에게 주시는 관심이 조금씩 적어지고 계십니다.

일반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서진이는 공부도 아주 잘 합니다. 받아쓰기에 100점도 맞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진이는 하얀 피부의 예쁜 얼굴에 애교도 만점입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서진이가 앞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랄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지하영 (6세)

하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필리핀 엄마와 2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공근로를 하시고 작은 논농사를 지어 생활하십니다. 어머니는 집안일과 할머니, 할아버지 봉양을 하는 전업주부입니다.

복지관의 '어린이 집'에 다니기 전까지 엄마와 함께 지낸 하영이는 낯을 많이 가리고 친구들 앞에 서거나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면 눈물보가 먼저 터지는 매우 수줍은 아이입니다. 이는 한국에 온지 수년이 지났으나 비싼들이가 적고 조용조용한 어머니의 성격 영향을 받아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뚜렷이 긍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 또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듯합니다. 하영이가 활발히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노해동 (9세)

해동이네는 할머니와 해동이 이렇게 둘이서만 살아가고 있는 조손가정입니다. 할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 수급권 가정입니다.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해동이는 주로 할머니와 함께 있거나 아니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해동이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해동이 역시 할머니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와드리려 노력하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씩씩하고 예의 바른 해동이입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최근 나빠지셔서 많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소득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동이에게 힘이 되어주실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원주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신은경 (14세)

은경이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며 아버지와는 통일교라는 종교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말을 아주 잘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본어 강사를 하신다고 하나 수입은 많지 않고, 아버지는 가끔 일용직을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5남매와 부모님은 월세집(월 14만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있는 은경이는 예쁜 외모와 조용한 성격을 지녔으며 인형 놀이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은경이는 얼굴도 예쁘지만 인사를 잘 합니다. 기쁘고 예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집에서 은경이는 자기보다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동생이 4명이나 있어서 그런지 저희 반 동생들도 친동생처럼 잘 돌보고 예뻐합니다. 항상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천사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은경이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전민지 (9세)

민지는 2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서울에 사시고 민지는 시골에 내려와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소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시고 현재 허리 수술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내색은 못하고 혼자 방 안에서 우는 일이 많은 민지입니다. 외로운 민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박해빈 (9세)

해빈이는 알콜중독 증세의 아버지와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 사이의 1남2녀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연로한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천사들의 집에 아동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구타와 학대로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없으신 어머니와 할머니는 해빈이가 아버지와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시설에 머무는 두 누나들에게는 가끔 방문하시고 명절 때 귀가하게 하시지만 해빈이에게는 그런 작은 관심도 안 베풀어 고아 아닌 고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살 나이로 입소할 때에는 아주 작은 체구로 걸지도, 말하지도, 음식물을 씹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해빈이는 지금 어린이 집을 다니며 주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큰 목소리로 대답도 잘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방문하시어 아이는 모른체 하시고 두 누나만 만나실 때 엄마면서도 옆에 가지 못하고 떨어져 멍하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해빈이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는 사랑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최승용 (12세)

지난 6월에 천사들의 집에 입소한 승용이는 아버지만 계십니다. 어머니와 현재 이혼 상태인 아버지는 홀로 승용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승용이를 천사들의 집에 맡기셨습니다. 승용이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무척 컸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설에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 어린 승용이에게 큰 아픔이었나 봅니다. 2주일에 한번씩 아버지가 방문하시는 날이면 승용이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보입니다.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천사들의 집에서 지내야 하는 승용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지만 마음이 여러 울기도 잘 합니다. 그래도 항상 씩씩하게 대답하고 활기차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승용이가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더 활기차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이건일 (9세)

건일이의 부모님은 건일이가 2살 때 어머니의 빛이 문제가 되어 이혼하셨고 이혼 후 3개월만에 어머니는 건일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한 번 찾아오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건일이를 보러 오셨고 양육은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으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건일이를 자주 보러 오시지 않습니다.

다운증후군인 건일이는 귀엽고 애교도 많은 아이입니다. 고집이 세어서 말을 안 들 때도 있지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일 때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아이라 재혼 이후 자주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건일이의 마음을 대신 헤아려 주실 분들을 만난다면 건일이는 착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신은주 (7세)

은주의 아버지는 화물트럭운전에 종사하시고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아동 양육에 관심이 없고 양육을 힘들어 하셔서 은주를 천사들의 집에 맡기셨습니다. 은주가 처음 천사들의 집에 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부모님과 떨어져 불안해서인지 많이 울고 낯을 많이 가렸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뽀뽀도 해주고 윙크도 해주는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은주가 밝고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김다인 (8세)

다인이네 집은 할아버지의 오랜 지병과 병원 치료 등으로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고 지금은 할머니와 아버지, 언니, 오빠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집배원 일을 하고 계시지만 빚을 변제하느라 생활비는 할머니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줍은 듯 말 수는 없지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다인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곽혜진 (11세)

혜진이네는 중국에서 이주해 온 어머니, 포크레인 기사인 아버지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신장암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혜진이는 배려심이 많고 친절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아버지의 암 소식을 그늘졌던 혜진이의 얼굴을 따뜻한 결연을 통하여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흑빛청소년문화센터 추천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5월 ~ 2010년 10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10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10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10년 7월
고경애 / 고석태	~2010년 2월
곽금순	~2010년 10월
곽종무	~2010년 12월
광숙조	~2010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10년 7월
구춘희	~2010년 12월
권순 (리오바)	~2010년 12월
금화열 / 로사	~2010년 12월
김경호	~2010년 12월
김남현	~2010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10년 12월
김남식 (안드레아)	~2010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10년 12월
김동한	~2010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10년 1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10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10년 12월
김박철 (안젤라)	~2010년 12월
김성현	~2010년 11월
김성화	~2010년 7월
김수연	~2010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10년 10월
김영연	~2010년 4월
김영애	~2010년 12월
김영희 아네스	~2010년 11월
김우경	~2010년 12월
김원정	~2010년 11월
김윤상	~2010년 12월
김은자 루시아	~2010년 11월
김인순	~2010년 12월
김재인 (안나)	~2010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10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0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10년 12월
김종빈	~2010년 10월
김호찬	~2010년 12월
김홍자 (아네스)	~2010년 12월
민금순 마리아	~2010년 12월
민들레회	~2010년 12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10년 12월
바오로회	~2010년 12월
박기주 마리아	~2010년 12월
박민규	~2010년 11월
박봉임	~2010년 12월

박영수/Tri State Contractors	~2010년 12월
박요한	~2010년 7월
박종J	~2010년 12월
박찬호	~2010년 12월
서영숙	~2010년 12월
서정길	~2010년 12월
소근화 (도미나)	~2010년 12월
소병각	~2010년 12월
손양조	~2010년 11월
송상훈 / 마리아	~2010년 12월
안나희	~2010년 11월
안병화	~2010년 12월
안성환	~2010년 11월
안진군	~2010년 11월
안진순	~2010년 12월
염윤기	~2010년 12월
오성웅	~2010년 10월
우기업 / 데레사	~2010년 12월
원승철	~2010년 12월
유정식	~2010년 12월
은임순	~2010년 12월
이갑현	~2010년 11월
이강영 (데오도로)	~2010년 12월
이경숙 마리아	~2010년 11월
이기녕	~2010년 6월
이만수	~2010년 10월
이변준 / 세실리아	~2010년 12월
이수연	~2010년 12월
이순남	~2010년 12월
이순용 (안젤라)	~2010년 11월
이순주	~2010년 6월
이승규 / 분다	~2010년 3월
이신규	~2010년 12월
이말비나	~2010년 12월
이예자	~2010년 12월
이용운	~2010년 2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10년 10월
이은배	~2010년 10월
이정일	~2010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10년 12월
이태선	~2010년 12월
이태영	~2010년 8월
이태욱 / 리타	~2010년 12월
임계빈 / 데레사	~2010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10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10년 12월
정창조 / 루시아	~2010년 8월
조남식	~2010년 12월

조명규 / 데레사	~2010년 10월
조명규 / 조미란	~2010년 10월
조명규 / 조미화	~2010년 10월
조명규 / 조정현	~2010년 10월
조민주 / 조옥희	~2010년 12월
조봉순 (아카다)	~2010년 12월
조성연 안젤라	특별
최마리아	~2010년 12월
최문희 (카타리나)	~2010년 8월
최순희	~2010년 11월
최은경/단비/남규	~2010년 6월
최종걸	~2010년 6월
파티마사도직	특별
하명희 (말가리따)	~2010년 12월
하상희	~2010년 12월
한마리아	~2010년 12월
한정현	~2010년 10월
한중희 / 영희	~2010년 12월
허영숙	~2010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10년 12월
홍알벗	~2010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10년 12월
Garvey, Cheryl K	~2010년 5월
Langbauer, Catherine	특별
Lee, Susie	~2010년 11월
Lotte Cosmetics	~2010년 11월
Pierce, Young-Mi	~2010년 5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박영희 데레사	~2010년 12월
---------	------------

루치아 쉼터

박찬영	~2010년 8월
송승혜	~2010년 8월
오승은	~2010년 8월
이데레사	~2010년 9월
이명구 / 수산나	~2010년 4월
이영희	~2010년 12월
이윤아 쟈마	~2010년 8월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김동현 (2 아동 결연)	~2010년 12월
김영식/김소영	특별후원
바오로회	~2010년 10월

베론성지

박봉임	~2010년 12월
-----	------------

북평성당

김광호	~2010년 9월
김병윤	~2010년 12월

북한탈북자지원

한귀병	~2010년 10월
Yuh, Teresa	특별후원
Park, Paul M	특별후원

살레시오의 집

소재용 / 소난희	~2010년 10월
-----------	------------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김명숙	~2010년 12월
백승연	~2010년 3월
성승욱	~2010년 11월
성찬용	~2010년 10월
소재용 / 소난희	~2010년 10월
안크리스토퍼	~2010년 9월
이명자	~2010년 12월
이연철 / 박희임	~2010년 11월
편성대	~2010년 11월
한귀병 (토마스)	~2010년 10월
익명 H	~2010년 10월

서울장학결연

김주리	~2010년 11월
최병렬 / 최경희	~2010년 10월

영월 다문화지원센터

김병윤	~2010년 12월
유자경	~2010년 12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10년 12월
김병윤	~2010년 12월
김영지	~2010년 12월
김용상	~2010년 11월
김인석	~2010년 10월
김지은	~2010년 11월
매죽회 (2명 아동후원)	~2010년 11월
바오로회	~2010년 10월
박영수 (2명 아동후원)	~2010년 12월
서윤배 / 데레사	~2010년 12월
이도훈	~2011년 1월
이봉기	~2010년 8월
장경옥 / 윤성	~2010년 12월
정우석	~2010년 12월
정일희	~2011년 6월
차명자	~2010년 11월
한중희 / 영희	~2010년 12월
황덕수	~2010년 2월

원주 비안네성소

강명희	~2010년 12월
구귀옥	~2010년 7월
금화열	~2010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10년 12월

김두하	~2010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0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두하/연희	특별후원
김효중 아네스	~2010년 3월
박용걸/완다	~2010년 12월
서세실리아	~2010년 1월
안희숙 스텔라	~2010년 12월
유영희	특별후원
유정식/루시아	~2010년 6월
이산규	~2010년 12월
최창식/메리엔	~2010년 3월
한중희/안젤라	~2010년 12월
제천 노인복지관	
소재웅 / 소난희	~2010년 10월
익명 C	~2010년 11월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강스텔라	~2010년 9월
고현주 (2명 아동후원)	~2010년 12월
김계실	~2010년 12월
김미정	~2010년 12월
김영식 / 김소영	~2010년 12월
노명아	~2010년 10월
익명 P	~2010년 12월
유지광/유보나 (2명 아동후원)	~2010년 11월
이용선 (3명 아동후원)	~2010년 12월
정규임	~2010년 10월
최일지	~2010년 10월
흑빛공부방	
고경애	~2010년 2월
김순섭	~2010년 11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10년 12월
박완다	~2010년 12월
이진희	~2010년 11월
차창옥	~2010년 11월
최평란	~2010년 12월
네팔	
김명숙	~2010년 12월
김명철 / 소화	~2010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0년 12월
김헬리시아	~2010년 12월
변애린	~2010년 12월
안크리스토퍼	~2010년 12월
이은배	~2010년 12월
정규임	~2010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10년 12월
사랑의 선교 수사회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성심원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에과도르		
백승태 / 마리아	~2010년 12월	
유보나 팀	특별후원	
이태욱 루가	특별후원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박기주 마리아	~2010년 12월	
변레지나	~2010년 12월	
안순상팀	특별후원	
필리핀 뼈야따스		
이기영	특별후원	
이주원 / 이은영	특별후원	
재정기금		
김돈현	~2010년 12월	
김명철	~2010년 12월	
성정바로천주교회	~2010년 12월	
차명자	~2010년 11월	
홍세실리아	~2010년 12월	
Hi-Tech Bankcard	~2010년 12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
 님들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571)432-9868

사랑의 모금통

BP Shortfood	~2010년 7월
Beulah Cleaners	2010년 8월
Brafferton Cleaners/이갑용	2010년 4월, 8월
Capitol Cafe/서 제임스	2010년 4월
Chesterbrook Excel/김영술	2010년 2월, 11월
Convenience Express/이창권	2010년 4월
Express Seven Food/박정복	2010년 2월, 4월, 6월, 8월
Fair Oaks Cafe	2010년 5월
Georgetown Valet/김남식	2010년 2월
Greatfalls Cleaner/박원균	2010년 10월
Green Cleaners	2010년 8월
Greensboro Corp Cafe/이호	2010년 4월
J & C Interior/김재설	2010년 2월
John's Cafe/김재영	2010년 2월, 8월
Jon's Cafe/최용태	2010년 4월, 9월
Liberty Cafe/박루시아	2010년 2월, 4월, 8월, 11월
Lighthouse Wine & Sprit/Kim Mike	2010년 7월
Market Square Cleaners/최순희	2010년 2월
Maynine Inc/옹복순	2010년 2~5월, 7월, 8월, 10월
Montclair Cleaners/이애니	2010년 4월
Monument Cafe/최지돈	2010년 5월
NADA Cafe/Choi, Sandy	2010년 4월
Paddock Cleaners/한귀병	2010년 2월, 9월
Skyline Cafe	2010년 9월
Sun Dry Cleaners/권순 리오바	2010년 9월
Tyson's Super Cleaners/정대니얼	2010년 9월
Uptown Market/김소피아	2010년 1월
Wow Deli/임대식	2010년 4월
Yes!/차명학	2010년 5월
헤어스케치/이정연	2010년 1월, 6월, 7월, 10월

겨울밤의 기도 / 정유찬

어떤 날은
 지워버리고 싶고
 어떤 날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기고픈
 하루, 또 하루

거리의 바람이
 날카롭게 자나는 창가에서
 나는 잠들지 않고
 추억의 날들을 봅니다

기쁘고 슬픈 날들
 행복하고 괴로웠던 날들

사랑했고 미워했으며
 감사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과
 그것을 지나온 느낌들은
 하늘 끝까지 각각의 울림으로 다가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담기겠지요

때로는,
 지나온 추억과 만들어갈 미래와
 존재하는 순간이 모두
 의미 없는 것들로 다가와도

또다시 빛날 태양과
 밤이면 뜨는 별들 아래서

사랑하게 하소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날들을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며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0년 5월1일 ~ 2010년 11월 30일)

박요한 (일반), 박기주 마리아(파푸아 뉴기니), 이경숙 마리아 (일반), 이예자 (일반), 조성연 안젤라 (일반), Lotte Cosmetics/최정원 올리아나 (일반), Susie Lee/Alan Lee (일반), 강스텔라 (결연), Tyson's Super Cleaners/정대니얼 (모금통), Young Geum Eum (일반)

2010년 5월 - 2010년 10월분 후원금 내역: 총 \$84,107

	2010년 5월	2010년 6월	2010년 7월	2010년 8월	2010년 9월	2010년 10월	합계
총 후원금	9,658	4,480	6,995	8,637	13,961	40,376	\$84,107
원주후원회	2,393	1,195	2,025	1,192	711	1,521	\$9,037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600
대건의 집	100		100		120		\$320
루치아쉼터		220		420		150	\$790
베론성지							\$0
북평성당	110		170	160	60	110	\$610
북한돕기	200						\$200
살레시오의 집		120				240	\$36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475	405	520	700	290	635	\$3,025
서울장학결연	150	150	150	300		50	\$800
영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		240	60	180	60	\$600
원주복지관	1,230	710	1,690	1,370	1,030	1,010	\$7,04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40	20	30	5		20	\$115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100		300	180			\$580
제천시 노인복지관	120	120	60	60		240	\$60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2,340	480	570	840	450	600	\$5,280
흑빛공부방	680	560	620	740	500	680	\$3,780
목포 작은 꽃들의 집	660		120	360	120	60	\$1,320
겨울나기 난방지원						16,260	\$16,260
산타되어주기						17,840	\$17,840
탈북동포돕기		200	100			200	\$500
해외후원금							
인도네시아					10,000		\$10,000
네팔		200	200	200			\$600
사랑의선교수사회							\$0
성심원							\$0
에쿠아도르				1,100			\$1,100
파푸아 뉴기니	900			850	400		\$2,150
필리핀 뼈아따스						600	\$600

12월의 엽서 / 이해인 수녀

또 한해가 가 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해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 끝질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담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합니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믿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쓰고
모든 이를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운영이사: 유자경, 차명자, 고재오
 윤경자, 김글라시아, 노상문
 한린다, 이 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홍알벗, 신선애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간
행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특별후원()			
신청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청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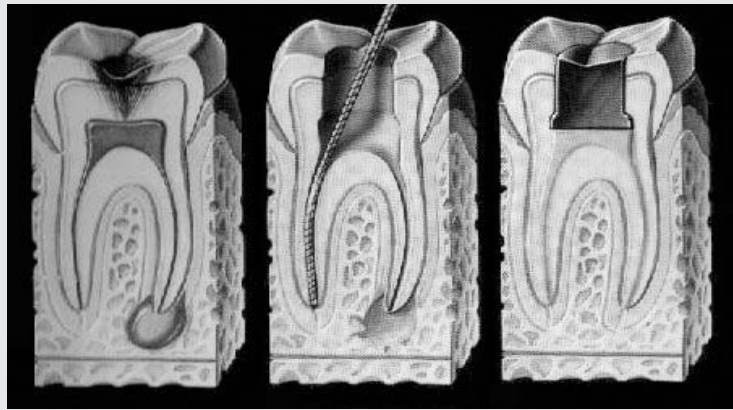
신청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휘어팩스
가정의학**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분 한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chael D. Kim, MD

김동현 가정의학 전문의

William & Mary 대학졸업
Medical College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전 Harrisburg Hospital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의 Clinical Faculty/역임
현재 INOVA Fairfax & Fair Oaks Hospital Staff Physician
현재 AMA, AAFP 멤버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학교신체검사

예방접종

종합검진

보험 :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취급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Tel. (703)591-4100 / Fax.(703)591-5380
10801 Main St., Suite 700, Fairfax, VA 22030 (새주소)



치주치과 전문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란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학력
Turfs 시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외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외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퐁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체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 김남식
Fair City Mall 근처 U.S 우체국 바로옆의 골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Fairfax MEMORIAL “Service Above All”
Full Service Funeral Home and Crematory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WASHINGTON
GRAPHICS

실사출력 전문업체 - 워싱턴그래픽

차량랩핑, 베너, 현수막, 레스토랑,
델리 등의 메뉴보드, 벽화
그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703.750.2884